

# 한국전쟁과 한국 경제학계의 지적 프레임 변동\*

홍정원\*\*

## 〈차 례〉

1. 서론-한국전쟁과 한국 사회과학의 단층
2. 이론 체계의 변동
  - 케인즈경제학의 수용·확산과 ‘개발’을 위한 계획
3. ‘한국경제’의 갈 길
  - ‘필연’으로서 자본주의와 ‘전(前)자본주의 단계의 현실
4. 결론

## 【국문초록】

해방 이후 맑스주의경제학의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계의 학문경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학문경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갔다. 전시(戰時)부터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케인즈경제학으로 급격히 전화하였고, 그러한 전화의 지렛대는 194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산출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 즉 케인즈경제학을 투자·저축·국민소득결정에 관한 경제이론으로서 해석한 텍스트들이었다. 당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산출되었던 케인즈경제학이 후진적인 한국 경제체제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평가 또한 제기되었지만, 케인즈경제학이 후진국의 경제성장 문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전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체제 변동 속에서 자본주의는 “지양될 운명”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체제 건설을 전망했던 한국 경제학자들의 사상적 경향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지양되어야 할 것이었던 자본주의 체제는 ‘객관적 필연’으로 긍정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전(前)자본주의’ 단계로 낙착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필연’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질서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연세대학교 근대한국학연구소 / 연구교수

속에서 선진자본주의와 후진자본주의의 역사적 거리는 더욱 현격하게 감각되었으며, 그러한 거리는 ‘전(前)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구도로 이해되는 가운데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은 ‘부럽게 돌아봐야 할’ 근대화의 경전으로 초점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제어] 한국전쟁, 맑스주의, 자본주의, 케인즈경제학, 개발, 후진성, 근대화

## 1. 서론 – 한국전쟁과 한국 사회과학의 단층

본 연구는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이념과 학문체계에 미친 충격과 영향을 밝히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한국 사회가 처한 세계적, 역사적 ‘현실’과 앞으로의 실천적 ‘전망’에 관한 사회과학의 지적 프레임 변동을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려는 것이다.

근대 학문(discipline) 체계에서 ‘사회과학’은 인간사회에 관한 보편적인 이론 체계의 정립을 시도하는 가운데 사회적 현상과 문제를 파악·진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문제해결의 전망과 방안 제시를 주된 임무로 삼아왔다. 그렇기에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현실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과 논리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출할 뿐 아니라 정책·운동 등을 통해 실천적으로 개입했던 대표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미·소의 분할점령과 갈등, 좌우의 세력의 격렬한 대립 속에서 탄생한 한국은 분단국가로서의 성격과 함께 탈식민국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분단국가로서 체제 건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했던 동시에 식민지배의 유산을 탈각하고 자주적인 국가·사회체제 건설의 과제에 직면해 있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분단’으로 인해 이데올로기적 범위·한계가 힘을 발휘하고 있었지만, 체제 건설 경쟁 뿐 아니라 탈식민 국가로서 한국이 처한 역사적, 세계적 ‘현실’과 앞으로의 실천적 ‘전망’에 관한 이념적, 지적 프레임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제기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학술, 교육체제의 유산을 극복하고 자주적인 교육·연구 제도와 학문체계를 정립해 나가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대학’을 축으로 한 고등교육체제의 틀이 작동하게 됨에

따라 사회과학자들의 학술과 지식체계의 재생산 기반 또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움직였던 한국 사회과학자들의 지적 프레임에 한국전쟁은 강한 충격을 가하였다. 본 연구는 ‘경제학’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가 처한 세계적, 역사적 현실을 인식하고 장래를 전망하는 사회과학자들의 지적 프레임에 한국전쟁은 어떠한 충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나타난 사상적 단층(斷層), 윤키와 하강의 양상을 밝히려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전쟁 발발 이후 새로운 국면, 즉 전후(戰後) 국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자들은 어떠한 이념적, 지적 프레임을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려는 것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한국전쟁이 초래한 한국 사회의 변동에 관해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적지 않은 연구가 축적되어 왔고, 특히 본 주제와 관련된 연구로서 ‘이데올로기’, ‘사상’, ‘문화’ 영역의 변동 또한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들 연구는 대체로 2가지 방식으로 접근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미국의 영향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미국이 수행한 심리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을 거치며 본격화되어 다양한 수준에서 폭 넓게 전개되었던 미국의 대한 원조 프로그램과 그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미국의 문화전파와 헤게모니 구축 문제를 분석한 연구 등이 대표적이다.<sup>1)</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미국의 ‘목표’와 ‘전략’, ‘방법’에 대한 분석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행위자들은 그에 대한 반응 주체로서 제한되는 기본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나타난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변동, 즉 반공주의의 확산과 사회화 과정<sup>2)</sup>, 냉전 의식과 진영 논리의 형성과 고착 과정에 대해 접근하는 연구 등을 들 수 있다.<sup>3)</sup> 이러한 연구 경향은 주로 정부

1) 임대식, 『1950년대 미국의 교육원조와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문제연구소 편, 『1950년대 남북한의 선택과 굴절』, 역사비평사, 1998; 허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철수와영희, 2012.

2)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1998.

3) 김봉국, 『냉전과 투쟁: 전후 한국의 세계해석과 의미경쟁(1945~1953)』, 선인, 2018.

당국이 생산한 텍스트나 신문, 잡지 매체의 내용 변화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쟁을 계기로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변동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데올로기의 공식적 표층만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계가 있다. 즉, ‘대학’을 축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한국 사회의 지식(재)생산 체계와 그에 결합된 이데올로기 또는 지적 프레임의 변동 문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분석 대상이라 할 수 있는 한국전쟁 전후(前後) 한국 사회 과학의 이론과 학문 체계에 관한 연구는 오랜 기간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치학’ 분야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한국 사회 과학 분야의 이론과 학문 동향 전반에 관한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학 분야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경제학 분야의 경우, 학술사, 학회사, 학과사 등이 편찬되어 당시 경제학계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에 관한 윤곽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sup>4)</sup> 이와 함께 당시 학계에서 활약했던 최호진, 고승제, 김준보 등 경제학자들의 일제시기 이래 학문체계 형성과 변화의 궤적을 밝히는 연구들이 제출되어 현대 한국 경제학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역사적 이해를 깊게 하였다.<sup>5)</sup> 이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1950~60년대 초반에 이르는 시기 경제개발론, 경제정책론에 관한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그 동안 여러 연구가 제출되었다.<sup>6)</sup>

4) 趙璣濬, 『經濟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2): 學術·思想·宗教史(上)』,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6; 韓國經濟學會, 『韓國經濟學會略史』, 1991; 김근·이현창 편,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대한민국 학술원 편, 『한국의 학술연구: 경제학(인문·사회과학篇 제6집)』, 2005; 정진아, 『해방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한국경제학보』 22권 3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김하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1): 한국의 근대경제학(1915~1956)』,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5)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韓國農業經濟學의 泰斗, 金俊輔 先生의 삶과 學問世界』, 농민신문사, 2009; 姜命主, 『高承濟博士의 學問世界』, 峯山高承濟博士 古稀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峯山高承濟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88; 吳錫錫,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21권 2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홍성찬,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6) 박태균, 『1950년대 경제개발론 연구』, 『사회와 역사』 61, 한국사회사학회, 2002; 鄭眞阿,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박태균, 『원형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정진아,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 담론』, 사상계 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思想界』』, 소명출판, 2012; 홍정완, 『195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후진국 개발론 수용』, 『韓國史研究』 182, 韓國史研究會, 2018.

하지만, 해방 이후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을 포괄하여 경제학계의 학문 경향과 그 변동 양상에 관한 체계적이고 계통적인 연구는 부진한 상황이며, 그에 따라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한국전쟁이 미친 영향과 학문적 변동 양상에 관한 연구 또한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본고에서는 시기적으로 1950년대 중반까지를 연구대상 범위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과학자들에게 한국전쟁이 던진 충격과 영향을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두 개의 층위로 나누어 접근하고자 하는데, 첫째 이론체계이다. ‘경제학 원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경제학자들의 이론 체계 변동 양상을 밝히고자 한다. 해방 이후 한국 경제학자들이 근거를 두고 있던 이론 체계의 지형을 그려내는 가운데 전쟁 발발 이후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케인즈경제학이 빠르게 수용, 확산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 그 수용 양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던 관점이다. 당시 한국의 사회구성과 경제구조, 발전단계에 접근하는 이론적, 지적 프레임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체제 건설의 전망은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 2. 이론 체계의 변동

### - 케인즈경제학의 수용·확산과 ‘개발’을 위한 계획

해방과 더불어 사회주의 계열의 맑스주의 관련 저작 번역, 발간은 가히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일제시기부터 해방 직후에 이르기까지 맑스, 엥겔스 그리고 레닌의 저작 등 맑스주의 원전 번역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제출되어,<sup>7)</sup> 해방 직후 한국 사회의 맑스주의 ‘열(熱)’을 텍스트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20년대 이후 소련의 저명한 경제학

7) 박종린, 『사회주의와 맑스주의 원전 번역』, 신서원, 2018.

자로서 활약했던 에브게니 바르가(Evgenii S. Varga)의 저서와 평론은 맑스주의자가 아닌 경우에도 전문적인 학술지에서 주요하게 인용하였고, 학술지·대중잡지에도 자주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해방 직후 경제학계의 동향에 관한 최호진의 회고에서 볼 수 있듯이, 해방과 더불어 신국가건설운동이 전개되는 속에서 ‘경제학’에 대한 열망은 대단한 것이었다.<sup>8)</sup> 윤행중은 당시 상황을 “일제하 학문에 대한 거세상태에 있던 조선의 학도”가 해방과 더불어 “현실적 객관적인 진리를 탐구하려는 열화와 같은 의욕을 품고 발분망식하는 그들의 진격한 태도”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였다. 해방 이후 경성대학(京城大學)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들이 진용을 정비하여 재개하는 가운데 교수 인원의 부족과 더불어 한글로 된 경제학 교재의 부재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나 연구·교육의 여건 속에서 당시 경제학계의 학문 경향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에 다가가기 위한 실마리로서 경제학 교과서 내지 원론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표 1〉 한국전쟁 발발 이전 경제학 개설서, 원론서 목록

저자	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임호(林浩)	經濟學入門	新學社	1947
윤행중(尹行重)	理論經濟學(第一卷)	서울出版社	1947
박기혁(朴基赫)	경제학입문(상권)	三星文化社	1948
고승제(高承濟)	經濟學入門	乙酉文化社	1948
이석범(李奭範)	經濟學概說	三星文化社	1948
최호진(崔虎鎭)	經濟學大要	白楊堂	1948
최호진(崔虎鎭)	經濟原論	博文出版社	1948
김경보(金耕普)	經濟學入門	東邦文化社	1949
홍우(洪又)	經濟原論	乙酉文化社	1950

8) 최호진, 『일제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역사문제연구소 편, 『학문의 길 인생의 길』, 역사비평사, 2000, 74쪽.

위의 <표 1>은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 남한에서 발간되었던 경제학 개설서 내지 경제원론서를 발행연도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의 도서들을 구분해 보자면 임호, 박기혁, 김경보의 저작은 말 그대로 입문서로서 당시 중등교육 정도를 받은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대중적인 ‘경제학’ 개설서로 출간된 것이었다. 임호(林虎)의 『經濟學入門』은 1947년 5월 인민문화연구소(人民文化研究所) 사회과학부(社會科學部)에서 펴낸 『社會主義經濟學第一步』<sup>9)</sup>의 표제와 저자명을 바꾸어 발간된 책으로서 맑스주의 경제학을 대중에게 쉽게 전달할 목적으로 저술된 것이었다. 김경보(金耕普)의 『經濟學入門』은 「序文」에서 “恩師 尹行重 先生の 理論經濟學은 實로 稀貴하며 또 重要한 書籍임에도 不拘하고 初學者나 一般社會人에게는 過度로 크고 또 理解기 困難”하므로 “初學者及 一般勤勞大衆의 斯學에 對한 入門程度의 參考書”로 발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신고전과 경제학의 개념도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맑스주의 경제학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박기혁의 입문서는 후술할 것이다. 그 외의 저작은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저술된 학술적 성격의 원론서이다.

그 외의 저작은 모두 대학에서 ‘경제학’ 교재로서 사용하기 위해 저술된 학술적 성격의 원론서이다. 그 중에서 맑스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경제원론서로서 윤행중의 『理論經濟學』, 고승제의 『經濟學入門』, 이석범의 『經濟學概說』을 들 수 있다.

1933년 京都帝國大學 經濟學部를 졸업하고, 보성전문학교 교수로 활동했던 맑스주의 경제학자 윤행중은 해방 이후 저술된 최초의 경제원론서라 할 수 있는 『理論經濟學(第一卷)』(1947)을 발간하였다.<sup>10)</sup> 일제시기 케인즈의 『일반이론』(1936)을 1938년 한국에 최초로 소개했던 학자이기도 했던<sup>11)</sup> 그는 책의 「序文」에서 “解放 後 京城大學 法文學部에서 行한 經濟原論의 講義案을 土臺로” 하여 “理論經濟學全三卷中 第一卷”으로서 출간한 것임을 밝히

9) 人民文化研究所 社會科學部 編, 『社會主義經濟學第一步』, 新學社, 1947.

10) 윤행중의 『理論經濟學』은 <제1편 서론> - <제2편 상품가치론> - <제3편 화폐론>으로 구성되었다.

11) 尹行重, 『理論經濟學의 最新學說: <케인즈>經濟의 理論』, 『東亞日報』 1938년 8월 4일~7일, 3면. 이 글은 尹行重, 『現代經濟學의 諸問題』, 博文書館, 1943에 수록되어 있다.

고, 그 저술의 연유를 “經濟에 관한 一般의인 理論을 究明하고 나아가 朝鮮經濟의 特殊性을 理解하는데 필요한 계기”를 밝혀보고자 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轉換期經濟學”의 해명을 주된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資本主義의 生産諸關係는 그것이 發展함을 따라 崩壞의 過程을 밟게 되는 동시에 새로운 生産關係 즉 社會主義의 生産諸關係가 生成되는 것이다. (중략) 그러므로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對立鬭爭의 合則性を 인식하며 資本主義의 生産關係에서 社會主義의인 것의 生成과 그 發展에 관한 經濟理論이 要請되는 것이다. 즉 歷史的 轉換期에 있어서의 經濟는 質的 矛盾을 內包하고 있으며 한 개의 統一物이요 따라서 資本主義 諸法則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에 特有的 法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轉換生成期 諸關係는 그에 獨特한 法則이 支配하고 있는 만큼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동시에 一步를 進하여 새로운 理論體系를 樹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12)</sup>(밑줄-인용자)

이러한 ‘전환기경제학’의 문제설정은 “과도기적 경제제법칙을 통하여 우리의 당면과제인 조선경제의 현실성을 정당히 인식하며 그것을 과학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실천적 문제의식의 발로였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가 말하는 ‘전환기’란 무엇인가?

그는 세계적으로 전개된 독점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 서술하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통해 “독점자본주의경제”는 “그 통제를 일층강화”하여 “자본주의적 계획경제(國家資本主義)단계로 진전할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적 생산제관계의 생성의 객관적 물질적 기초를 형성하는 모태”라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현단계 세계경제”는 “자본주의생산의 사멸과 동시에 사회주의적 생산의 새로운 생성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으며, “해방 후의 조선경제” 또한 이와 같은 “세계경제발전의 한 개의 특수한 현상”이라 보았다.

12) 尹行重, 『理論經濟學(第一卷)』, 서울出版社, 1947, 58쪽.



해방 후 조선경제는 고도로 발전된 독점자본주의도,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도 아니지만, “조선의 광공업생산의 9할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인 재산의 국유화, 그리고 “토지혁명”은 “반봉건적인 농업생산”의 “사회화 또는 소유의 균등화”를 초래할 것이기에 당시 “조선경제의 특질”을 “사회주의경제의 단초형태”라 파악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말하는 ‘전환기의 경제학’은 “사회주의경제의 단초형태로서의 조선의 경제제현상에 내재적인 제법칙을 이론적으로 구명”함으로써 “자주적인 인민경제 수립”, 나아가 “세계경제의 일환으로서의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제학이었던 것이다.<sup>13)</sup>

이석범(李奭範)의 『經濟學概說』은 〈서론〉-〈제1편 가치론〉-〈제2편 화폐론〉-〈제3편 생산론〉-〈제4편 유통론〉-〈제5편 분배론〉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윤행중과 유사하게 “조선경제의 본질은 資本主義經濟의 死滅 卽 社會主義經濟의 端初(母胎)形態”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朝鮮에 있어서의 當面한 經濟學은 轉換期經濟의 現實의 諸現象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하여 그 現象에 內在하는 諸基本法則을 究明할 任務가 있다”고 하였다.<sup>14)</sup>

다음으로 고승제의 『경제학입문』(1948)은 앞서 살펴본 윤행중, 이석범의 원론서와 다른 형식을 취하는 것이 눈에 띈다. 그는 책을 〈제1장 자본주의의 발생〉, 〈제2장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본법칙〉, 〈제3장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법칙(1)〉, 〈제4장 자본주의 발전의 기본법칙(2)〉, 〈제5장 독점 형성의 제문제〉, 〈제6장 금융자본의 성립〉, 〈제7장 독점 자본주의의 제문제〉로 구성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법칙을 밝히면서 그 성립과 발달 과정을 중심으로 원론서를 구성했던 것이다.<sup>15)</sup> 고승제의 『經濟學入門』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전화”<sup>16)</sup>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맑스주의 경제학에

13) 윤행중, 위의 책, 59~63쪽.

14) 李奭範, 『經濟學概說』, 三星文化社, 1948, 12~13쪽. 이석범은 충남 부여출신으로 九州帝國大學을 졸업, 책 발간 당시(1948년 29세) 중앙대학교 교수였다.

15) 이와 같은 책의 구성에 대해 전석담은 “참신한 특색”이 있다며 호의적으로 평가했다. 全錫淡, 『書評』 高承濟 著, 『經濟學入門』, 『學風』 1-1, 乙酉文化社, 1948년 9월, 66쪽.

16) 高承濟, 『經濟學入門』, 乙酉文化社, 1948, 168~169쪽.

입각하여 저술된 원론서였다.

남한의 경우, 대체로 1948년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맑스주의와는 이질적인 학문적 경향의 저작들이 출판되어 대학교육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는 저작이 입문서로서 박기혁의 『경제학입문(상권)』(1948)과 경제원론서로서 최호진의 『經濟學大要』(1948), 홍우의 『經濟原論』, 이종극(李鍾極)의 『基礎經濟學』(1949)을 들 수 있다.

이종극의 『기초경제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이채를 띠는 경제학개설서이다. 저자 이종극은 정부 수립 이후 주로 법학자로 활동했던 인물로서 『기초경제학』은 그가 경찰전문학교 교수 시절에 저술한 책이다.<sup>17)</sup> 그는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經濟와 法律은 現代의 社會, 國家를 들여다보는 두 눈이다. 社會나 國家를 보는 눈은 비단 法律, 經濟 뿐만이 아니라 政治·道德·藝術 其他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經濟와 法律의 두 눈을 통하여 본 國家, 社會가 보다 더 如實한 것이다. 現代 文明 諸國의 法制를 보면, 모두가 판에 박은 듯이 法이 萬人의 自由와 平等을 宣言하여 貴族이나 賤民이나 죄다 같은 義務를 지고 權利를 가지며, 同一한 法の 適用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經濟의 活眼을 열어 社會를 達觀하면, 法律上의 自由나 平等이란, 經濟上의 自由나 平等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라는 事實에 一瞥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 누구나 다 아닌 다와 같이, 資本主義 經濟 社會란 要컨대, 資本이 主人公으로 君臨하고, 社會의 大衆은 이 主人公의 忠僕으로서 奉仕하고 있는 社會인 것이다. 資本主義 社會는 人類가 經驗한 (...) 諸 特徵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諸 特徵은 이 社會가 極少數의 富者와 壓倒의 多數의 貧者를 內包하고 있어 前者가 後者를 經濟的, 政治的, 社會的으로 支配하여 後者의 勤

17) 이종극은 1907년 평남 강서에서 출생하여, 1929년 3월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졸업 후, 교원생활을 하다가 1939년 10월 일제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하여, 일제말기 평남 강서군수를 지냈고, 해방 이후 광주사범학교 교장을 거쳐, 국립경찰전문학교 교수, 국립경찰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이후 내무부 치안국 교육과정을 거쳐 1955년 중앙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5.16쿠데타 이후 민주공화당 국회의원이자 정책위원회 의장 등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1949년부터 1950년대까지 행정법, 헌법에 관한 여러 저술을 남겼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8\\_03798](http://db.history.go.kr/url.jsp?ID=im_108_03798)) 참조.

勞汗 結果의 一部를 劫掠함으로써 前者의 繁榮이 維持되고 있다는 點에 이를 要約 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밑줄 인용자)

우선 그는 ‘현대’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두 눈으로 ‘법률’과 ‘경제’를 들었다. 법률을 ‘형식’의 차원, 경제는 ‘실질’의 차원으로 대비하고, 양자에서 ‘만인의 지위’는 현격한 거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사회는 자본이 군림하고, 대중은 충복(忠僕)으로 봉사하는 사회로서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빈자를 겁박하고 약탈함으로써 자신의 번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기초경제학』의 구성은 <제1편 재산제도>, <제2편 생산제도>, <제3편 분배제도>, <부록: 경제학 연구의 출발>로 되어 있다. 부록을 제외하면 재산, 생산, 분배 세 부문으로 구성했다는 점, 세 파트 모두 “제도”로 명명하고 있으며, 특히 “재산”이라는 별도의 파트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은 여타 경제학 원론서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1편 재산제도>의 내용을 보면, 초창기 자본주의 경제의 사유재산제도는 생산의 발달과 재산의 축적, 인재의 활용 등 그 목적·기능·효과에서 모두 긍정적이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른 ‘투자제도’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소유자’(주주·예금주 등)와 ‘이용’(중역 이하 노동자, 종업원)을 분리시켰고, 이는 자본주의 생산을 고도화, 일반화하면서도 도리어 ‘재물의 이용자’를 압박하여 ‘생산’을 저해하게 했다고 보았다.<sup>19)</sup> 다시 말해 “자본가란 낭비계급의 호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백만 대중이 근로봉사하고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하면서 그 후임자, 즉 “자본가 대신에 민중에게 절약을 강제하여 축적한 재산을 사회를 위하여 잘 관리해 줄만한 적임자”로서 “정부 내지 민중대표기관”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최근에는 정부가 각종 기업을 경영함으로써 이윤·이자의 이름으로 교묘한 민중 착취(착재)법을 터득하였으므로, 자본축적의 책임담당자로서의 경험과 훈련을 쌓았

18) 李鍾極, 『基礎經濟學』, 研學社, 1949, 『序文』.

19) 李鍾極, 위의 책, 7~9쪽.

을 뿐 아니라 재산 ‘이용’자로서 ‘정부’가 일층 더 책임이라 판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21~22쪽).

결론적으로 종래의 자본주의적 축재제도는 “사회주의적 축재제도”로서 개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첫째, “축적담당자의 경질”이다. “遊食階級化”한 자본가를 파면하고 “有爲 有能한 新擔當者”로서 “국민대표자-정부 내지 공공단체”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배기준의 변경”이다. 축재에만 급급하여 국민대중의 생활을 희생하던 제도와 정책을 고쳐, “생산력의 증대와 정비례”하여 “대중의 생활향상, 문화축진에 필요한 한도의 소비를 허용”함으로써 “대중의 소비력 즉 구매력”의 증대를 통한 생산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셋째, “재산의 이용자 본위제도의 확립”이다. “생산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재산의 소유권자보다 이용자를 보호 후대해야 하므로 “소유권지상주의를 이용권지상주의로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가 이익의 증가를 위해 운용되었던 자본주의재산제도를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운용되는 사회주의적 재산제도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주장하였다.<sup>20)</sup> 『기초경제학』 외 이종극의 경제학에 관한 저술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저작이 어떠한 이론적, 사상적 계보에서 출현한 것인가에 관한 해명은 쉽지 않다.<sup>21)</sup> 다만, 그의 저작은 맑스주의 경제학에 입각한 원론서가 아님에도 자본주의 질서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사상적 경향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박기혁의 입문서는 형식에서 남다른 점이 적지 않다. 순한글을 사용하면서 간혹 드물게 한자를 괄호로 병기하였으며, 경제용어를 표기할 때 ‘영어’를 기준으로 삼았고, 장별로 말미에 ‘질문’, ‘응용’, ‘토론’, ‘레포트’ 항목을 설정하여 수록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추상적 이론을 버리고”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경제적 사실 중심의 경제 이해를 내세우면서, “종래의 공식주의적인 경제

20) 李鍾極, 위의 책, 58~64쪽.

21)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법학을 포함하여 이종극의 학문, 사상 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학 이론에 얼굴을 찌프리는” 경제학도들에게 “다소의 청신한 영양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 경제학의 입장에서 저술된 입문서이다.<sup>22)</sup>

한편, 최호진이 집필한 『경제학대요』(1948)는 해방 후 출간한 그의 첫 경제원론서이다. 이에 앞서 최호진은 1946년 맑스주의 사적 유물론을 공개적으로 소개하고 천명했던 『一般經濟史』를 출간한 바 있으나,<sup>23)</sup> 정부수립을 즈음한 시기에 “近代自由主義經濟學의 理論”을 담은 『경제학대요』를 출간했던 것이다. 그의 『경제학대요』는 1920년대 후반부터 레옹 발라(Léon Walras)의 일반균형이론을 포함한 신고전파 경제학을 일본학계에 체계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던 다카다 야스마(高田保馬)의 경제원론서와 구성이 흡사한 것이었다.<sup>24)</sup> 최호진의 『경제원론』(1948)은 『경제학대요』에서 개괄적인 ‘경제학설사(經濟學說史)’의 내용을 추가하여 발간한 것이었고, 한국전쟁 직전 홍우가 출간한 『경제원론』 역시 말미의 ‘경기변동’ 파트가 최호진의 『경제원론』과 ‘경기변동’ 파트가 없다는 점 외에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다카다 야스마(高田保馬)의 경제학은 해방 직후 경제학자들에게 잘 알려

22) 박기혁, 『경제학입문(상)』, 삼성문화사, 1948, 「머릿말」. 박기혁은 1922년 황해도 송림에서 태어나 1943년 法政大學 經濟學部를 졸업했다. 해방 이후 감리교신학교에 입학하여 1949년 졸업했으며, 1950년 미국 유학을 떠나 1956년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농업경제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57년부터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0년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해원 박기혁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1987, 5~6쪽.

23) 최호진의 경제사 저술에서 나타났던 사상적, 학문적 변화에 대해서는 홍성찬,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동방학지』 145, 2011 참조.

24) 高田保馬, 『經濟原論』, 日本評論社, 1933 참조. 최호진의 『경제학대요』는 서론-생산론-교환론-분배론-경기변동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카다 야스마의 『經濟原論』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카다의 『經濟原論』은 1933년 발행되어 1941년에 26쇄를 찍은 당시 대표적인 경제원론서라 할 수 있다. 다카다 야스마는 1925년부터 1928년까지 九州帝國大學 교수를 거쳐 이후 京都帝國大學 經濟學部 교수로서 일본 경제학계에 신고전파 경제학의 수용과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학자였다. 그의 연구영역은 사회학 분야를 포함하여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그의 경제학이 갖는 특성과 당시 경제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조. 早坂忠 『日本經濟學史における高田保馬博士』, 高田保馬追想録刊行會編, 『高田保馬博士の生涯と學說』, 創文社, 1981, 112~155쪽; 牧野邦昭, 『戰時下の經濟學者』, 中央公論社, 2010, 「第四章 近代經濟學の誕生」; 藤井隆至 編, 『近代經濟思想』, 東京堂出版, 1998, 163~166쪽.

최호진은 1938년 九州帝國大學에서 입학하여 하타노 카나에(波多野鼎)를 지도교수로 하여 수학하였으나, 기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입학 후 2학기에 九州帝國大學에 출간했던 다카다 야스마의 『經濟學概論 제2부』를 수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진석,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21권 2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129~131쪽 참조.

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所謂 理論經濟學 卽 經濟原論에 關한 文獻”을 소개하면서 육지수(陸芝修)는 “教科書의 原論”으로서 “高田保馬 教授의 『第二經濟學概論』, 『經濟學新講』이 所謂 부르조아陣營에서는 第一 좋은 冊의 하나일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經濟學新講』은 全五卷이나 되는 大著로 그의 理論을 完全히 展開”하고 있다고 평가·소개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25)</sup>

그렇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고승제의 『경제학입문』(1948), 윤석범의 『경제학개설』(1948)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듯이 맑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이 급격히 위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윤석범의 『경제학서설』은 앞서 윤행중과 유사하게 “조선경제의 본질은 資本主義經濟의 死滅 卽 社會主義經濟의 端初(母胎)形態”라 할 수 있기 때문에 “朝鮮에 있어서의 當面한 經濟學은 轉換期經濟의 現實的 諸現象을 그 研究의 對象으로 하여 그 現象에 內在하는 諸基本法則을 究明할 任務가 있다”고 하였다(12~13쪽). 고승제 또한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자체가 새로운 형태로 전화”(168~169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맑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은 적지 않게 지속되고 있었다.

앞서 최호진, 박기혁의 저작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수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맑스주의 경제학과는 다른 학문적 경향을 가진 경제학자들 또한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고승제가 편집을 주도하여 발간했던 『學風』의 경제학 특집호(1949년 5월호)는 이와 같은 경제학계의 상황을 담고 있는 것이었다. 이 특집호는 앞서 언급한 이석범을 비롯하여 전석담(全錫淡), 이진영(李辰永) 등 맑스주의 경제학자들의 경제이론, 경제사 논고와 함께 맑스주의 외 여러 경제학 조류에 입각하여 신태환, 이면석, 최민환, 한춘섭 등이 작성한 경제이론, 경제학설사, 경제정책 등에 관한 논고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표명되어 있어 주목된다.

25) 陸芝修, 『經濟學入門：文獻紹介』, 『新潮』創刊號, 新潮社, 1947년 4월, 39쪽. 이와 더불어 육지수는 “河上肇 教授의 『經濟學大綱』이라던지 小冊이지만 『맑스主義經濟學』 같은 것은 완전히 맑스主義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맑스의 資本論의 入門書인 것이다. 이런 點에서 必讀하여야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고승제는 ‘현대경제학’의 제 조류를 비판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경제학 입문』과 같이 ‘맑스주의경제학’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정한 변화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는 일제말기 칼렉키(Michal Kalecki)의 저서를 일본인 학자와 함께 번역<sup>26)</sup>한 바 있었기 때문에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일정한 식견을 바탕으로<sup>27)</sup> “전후 아메리카 경제정책은 케인즈 이론에 입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케인즈경제학을 둘러싸고 나타난 미국과 영국의 학계 동향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케인즈경제학에 대해 “금융독점자본주의에 바탕한 개량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한 반면, 이브게니 바르가(Evgenii S. Varga)의 경제학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현대의 경제학”의 역사적 사명은 “독점자본주의의 경제학 또는 세계자본주의의 경제학”으로서의 “현단계의 세계자본주의의 총기구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고 하였다.<sup>28)</sup>

한편, 특집호에는 케인즈경제학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신태환(申泰煥)의 『케인즈 貨幣理論의 性格』과 이면석(李冕錫)의 『케인즈의 生産物量 決定要因論』이 그것이다. 신태환의 논고는 케인즈경제학을 화폐론의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었다. 그는 1939년 東京商科大學을 졸업했다. 케인즈의 『일반이론』(1936)이 발간되자, 이를 일본 경제학계에 주도적으로 소개했던 것은 東京商科大學 경제학부 교수였던 나카야마 이치로(中山伊知郎)와 사토 니시부로(鬼頭仁三郎), 시오노야 쓰쿠모(鹽野谷九十九) 등이었다.<sup>29)</sup> 이들을 주축으로 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일본 경제학계의 케인즈 『일반이론』에 대한

26) 増田操 譯, 『ケインズ雇傭と貨銀理論の研究』, 戦争文化研究所, 1944. 이 책은 칼렉키의 *Essays in the Theory of Economics Fluctuation*(1939)의 번역서이다. 譯者は「譯者序」을 통해 번역과정에 “經濟學士 高承濟(고승제의 創氏名)의 協력이 컸기 때문에 “共譯”으로 해야 하지만 “手續上”의 문제로 “略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27) 그는 1930년대말~40년대초 “케인즈理論이 敎壇經濟學에 浸透되지 못했다”던 당시 “敎授들과의 私的 討論에서 經濟學을 實踐科學으로 轉換시키기에 成功한 『一般理論』의 聲價를 듣고”, “一般理論을 精讀하기 위하여 翻譯을 하면서” 읽었지만, “三個月後인가 日本語翻譯이 출간되어 “翻譯的 讀書法도 中斷”되고 말았다고 하여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과정을 회고하였다. 高承濟, 「나의 學窓時節」, 『財政』 6권11호, 大韓財務協會, 1957년 11월, 167쪽.

28) 高承濟, 「現代經濟學의 諸問題」, 『學風』 2권 4호(통권6호), 乙酉文化社, 1949, 4~11쪽.

29) 中山伊知郎 編, 『ケインズ一般理論解説』, 日本評論社, 1939; J. M. 케인즈著, 鹽野谷九十九 譯, 『雇傭・利子及び貨幣の一般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41.

주류적 해석은 케인즈의 이전 저작이었던 『화폐론』(1930)의 연장선상에서 금융론의 관점이나 ‘화폐적 경제이론’, ‘화폐적 경기론’으로서 해석하는 것이었다.<sup>30)</sup> 이와 같은 『일반이론』에 대한 접근 방식이나 관점은 정부수립 직전 발간된 『朝鮮銀行調査月報』에서 케인즈를 “貨幣的 景氣論者 中の 泰斗”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sup>31)</sup> 신태환의 논문 또한 케인즈경제학을 “경기순환을 화폐적인 각도에서 해결”하는 화폐경제이론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전전(戰前) 일본 경제학계의 해석을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이면석의 논문은 케인즈의 『일반이론』을 “생산물량”=“고용량”=“국민소득”의 결정요인을 담은 텍스트로서 접근한 것으로 이는 위에서 살펴보았던 신태환의 화폐이론적 해석과는 이론적 접근 방향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면석은 1941년 일본 慶應大學에 입학하여 1944년 학병으로 동원되어 학업이 중단되었다가 해방 후 1946년 京城大學을 졸업한 후 조선은행에 입사, 근무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의 회고를 보면, 1930년대말~1940년대 산출되었던 케인즈의 『일반이론』에 관한 주요 논문을 모아 1947년 해리스(Seymour E. Harris)가 편집하여 발간한 *The New Economics*를 읽고 작성 직전에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2)</sup>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전쟁 발발 이전 남한의 경제학계에서는 맑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지속되는 가운데, 신고전파 경제학에 근거한 경제학 교과서가 출간되고 케인즈경제학 등을 비롯하여 고전파 경제학 등 맑스주의 경제학 이외의 경제학 이론체계에 근거한 학자들이 움직임이

30)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전 일본 경제학계의 케인즈경제학 도입, 수용에 대해서는 三上隆三, 『日本におけるケインズ經濟學の導入』, 伊東光晴 編, 『ケインズ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67; 早坂忠 編, 『ケインズとの出遭い』, 日本經濟評論社, 1993 참조.

31) 『케인즈의 景氣循環說 研究』, 『朝鮮銀行調査月報』 17호, 朝鮮銀行調査部, 1948년 7월, 133쪽. 이 논문의 서두에는 “此 小稿는 Keynes 著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1936)의 第22章 「景氣循環에 관한 覺書」를 中心으로 著書의 重要部分을 比較参照하여 엮은 것이다. 衆知하는 바와 같이 Keynes는 貨幣的 景氣論者 中の 泰斗이나 그가 景氣問題에 關하여 詳論한 文獻은 없고 다만 上記 覺書만으로 結論的인 그의 景氣論을 窺知할 수밖에 없다. 小稿의 結構가 貧弱하고 内容이 不實한 點은 오로지 筆者의 淺涉의 所致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32) 李冕錫, 『逆說的인 人生』, 亞細亞文化社, 1985, 130쪽.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경제학계의 이데올로기적 수준의 재편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커다란 인적인 재편을 가져왔다. 전쟁 과정에서 지식인들이 납북되거나 월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지만, 북한군의 서울 점령시 잔류했던 대학의 교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역혐의를 심사하여 많은 교수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야 했던 것이다.<sup>33)</sup> 이러한 급격한 인적 단층이 발생하는 속에서 전쟁 발발로 중단되었던 각 대학의 강의는 전선이 교착되자 1952년을 전후하여 전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이나 대구에서 재개되었고, 전시 중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와 교육을 재정비하려고 하였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경제학계에는 전전(戰前)과는 확연히 다른 학문적 경향이 급속히 파급되기 시작하였다. 전시(戰時)부터 고전파경제학이나 신고전파경제학의 내용과 의의에 대한 조명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케인즈경제학으로 급격히 전화하였다.<sup>34)</sup>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1955년 김두희에 의해 번역되었지만, 이미 1952년부터 고승제, 신태환, 최호진 등의 주도로 케인즈경제학으로의 전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최근의 경제학논저 가운데 하바드대학 경제학 교수 세이무어 해리스에 의하여 엮어진 신경제(*The New Economics*, 1947)의 출현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5)</sup>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신태환의 논설에서 알

33) 정진아, 『해방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앞의 책, 462쪽. 서울대학교에서는 당시 문교부 고등교육국장이었던 김두현(金斗憲)과 ‘도강파(渡江派)’ 교수들을 중심으로 단과대학별로 ‘잔류파(殘留派)’ 교수·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심사결과를 문교부에 통고하였다. 1951년 11월 서울대학교 재적 교원이 370명 남짓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같은 시기 문교부에 통보한 자체 심사결과 ‘과면(罷免)’으로 분류된 교원이 114명이었다는 점은 한국전쟁이 학계에 미친 충격을 짐작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40년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40년사』, 1986, 51~55쪽 참조.

34) 1950년대 초반부터 1960년대 전반까지 경제학·상학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하여 발간했던 주요 대학의 경제학 관련 학술지, 학회지를 보면 당시 경제학계의 학문적 동향을 살펴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발간 『經商論叢』,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학생상학회 발간 『商大學報』, 연희(연세)대학교 상경연구회(商經研友會) 발간 『經濟學叢』,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예부 발간 『商大評論』,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 발간 『經常學報』 등을 살펴보면 고전파경제학, 신고전파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에 관한 소개와 그 의미를 검토하는 글이 대종을 차지하였다.

35) 申泰煥, 『케인즈와 新經濟學』, 『大學新聞』 1952년 7월 14일 2면.

수 있듯이, 그러한 학문적 전화의 지렛대는 194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산출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였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일본의 경우, 전전(戰前)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화폐론적 해석방식은 종전 이후 미국의 케인즈경제학 해설서-해리스(S. Harris)의 *The New Economics* (1947)와 클라인(L. R. Klein)의 *The Keynesian revolution*(1947)-가 번역·소개되는 가운데 급격히 변화해 갔다고 한다.<sup>37)</sup> 한국에서는 앞서 이면석(李冕錫)의 경우와 같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를 접한 경우도 있었으나,<sup>38)</sup> 대체로 전시 부산에서부터 미국에서 산출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가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9)</sup> 1952년 전시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강사였던 박동섭(朴東燮)은 “最近 나의 全情熱을 傾注하여 읽은 책은 하버드大學 經濟學教授 세이모어 E. 해리스 編纂에 의한 『新經濟學』 *The New Economics*(1947年)의 日本銀行 調査局 翻譯版이다”<sup>40)</sup>라고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경제학자들 중에서는 영문 원서를 통해 접하는 경우도 많았겠으나, 일본에서 번역된 미국의 케인즈경제학 해설서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36) 전시(戰時) 한국 경제학자의 미국 경제학계의 동향에 대한 상세한 소개로는 安森이 『内外經濟』 6호(1952년 5월)~11호(1953년 1월)에 연재한 「現代 美國의 經濟 思潮小考」를 들 수 있다.

37) 세이모어 E. 해리스 編, 日本銀行調査局 譯, 『新しい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49; L. R. 클라인 著, 篠原三代平·宮澤健一 譯, 『ケインズ革命』, 有斐閣, 1952. 클라인의 책은 단행본으로 번역되기 전에 앞서 1949년 1월 大藏省 『調査月報』 第38卷 特別一號로 번역되어 학계에 널리 영향을 미쳤다. 전후 일본의 케인즈경제학 수용에 대해서는 伊東光晴, 『戰後の近代經濟學』, 經濟學史學會 編, 『日本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84; 早坂忠 編, 앞의 책, 1993 참조.

38) 김두희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하기 얼마 전부터 “해리스(Harris)의 *New Economics*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 日本語譯도 시장에 나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김두희, 『우리나라 經濟學의 어제와 오늘』, 『비즈니스』 7권 3호, 비즈니스社, 1967년 3월, 32쪽.

39) 김윤환은 전시 부산에서 “딜라드 教授의 가장 平易한 케인즈經濟學解説書인 『J. M 케인즈의 經濟學』이 수입되어 케인즈經濟學研究熱을 북돋아 주었다”고 회고하였다. 金潤煥, 『美國의 經濟理論이 韓國經濟學 및 經濟政策에 끼친 影響』, 『亞細亞研究』 10권 2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7년 6월.

40) 朴東燮, 『세이모어 E. 해리스編 “新經濟學”』, 『商大評論』 創刊號, 서울大學校商科大學學藝部, 1952, 55쪽.

〈표 2〉 1950년대 경제학 개설서, 원문서 목록

저자	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홍우	경제학입문	동지사	1953
홍우	경제원론	탐구당	1953
최호진	경제대의	일한도서출판사	1953
홍우	(신고)경제원론	일조각	1954
성창환	경제학원론	제일문화사	1954
최호진	경제학	세광출판사	1954
최호진	경제학	박문출판사	1955
고승제	경제학	장왕사	1955
이정환	경제원론	양문사	1955
성창환	경제학원론	제일문화사	1955
성창환	경제원론	장왕사	1956
김두희	경제원론	박영사	1956
홍우	경제원론(개정판)	일조각	1956
최호진	경제원론(증정)	보문각	1957
성창환	경제학입문	근영사	1957
김준보	일반경제학	신명문화사	1958
홍우	현대경제학개론	을유문화사	1958
홍우	현대경제원론	일조각	1959
최호진	경제대의	일한도서출판사	1959
이정환	신경제학	진명문화사	1959
성창환	경제학개론	동진문화사	1959

정전 직후인 1954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의 번역이 출간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여러 종의 케인즈경제학 해설서가 번역·발간되었다.<sup>41)</sup> 이러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의 번역양상을 보면 조앤 로빈슨

41) 당시 번역되었던 대표적인 해설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 H. 한센(Hansen), 金容權·李冕錫 共譯, 『케인즈經濟學(A Guide to Keynes, 1953)』, 星座社, 1954; R. V. 클레멘스(Clemence), 高承

(Joan Robinson)의 해석 등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았으나, 주된 흐름은 1930년대말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던 미국 케인즈경제학계의 『일반이론』 해설서였고, 특히 미국내에서 케인즈경제학의 확산에 기여했던 주요 해설·입문서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케인즈 『일반이론』의 재해석, 수용·확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하버드대학교 앨빈 한센(Alvin Hansen)의 세미나였다. 그것에 참여했던 함께 했던 젊은 동료, 제자 그룹의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해석은 투자·저축·국민소득결정에 관한 경제이론이었다.<sup>42)</sup> 따라서 한국전쟁과 함께 시작되어 10년간에 걸쳐 한국 경제학계에 급속히 수용·확산되었던 케인즈경제학은 위와 같은 성격의 거시 경제이론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케인즈경제학 수용과 확산은 위의 <표 2>에 열거된 1950년대 경제학 교과서에도 잘 드러난다. 1950년대 전반까지 경제원론서는 대체로 한국전쟁 이전 발간되었던 최호진의 『경제학대요』와 유사한 형식, 내용을 담은 신고전과 경제이론에 근거한 것이었다. 1954년 홍우는 기존 자신의 『經濟原論』을 수정·증보하여 『新稿 經濟原論』을 출간했던 바, 그의 “新稿” 내용은

---

濟譯, 『新經濟學(Income Analysis, 1951)』, 民衆書館, 1954; Alvin H. Hansen 原著, 李冕錫譯, 『景氣變動論史(Business Cycle and National Income, 1951)』, 東國文化社, 1955; D. 디라아드(Dillard), 權赫紹譯, 『J. M 케인즈의 經濟學(The Economics of John Maynard Keynes, 1948)』, 文星堂, 1955; 소울(George Soule) 著, 高承濟譯, 『新經濟學 解說(Introduction to Economic Science, 1954)』, 章旺社, 1955; 존 로빈슨(Joan Robinson) 著, 金鍾遠譯, 『케인즈 『一般理論』 入門(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employment, 1937)』, 精研社, 1955; L. R. 클라인(Klein), 朴喜範譯, 『케인즈혁명(The Keynesian Revolution, 1947)』, 民衆書館, 1956; A. H. 한센(Hansen), 金聖範譯, 『貨幣理論과 財政政策(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1949)』, 博英社, 1957; 켈뮤엘슨(Paul A. Samuelson), 金容甲·沈炳求 監修譯, 『經濟學(上)/(下)』, 創元社, 1957/1959; J. 로빈슨(Robinson), 朴喜範·安台鎬 共譯, 『맑스와 케인즈』, 凡潮社, 1957; 존 로빈슨(Joan Robinson) 著, 李圭東譯, 『資本蓄積論(The accumulation of capital, 1956)』, 一潮閣, 1958; S. E. 해리스(Harris), 金潤煥譯, 『케인즈經濟學 入門(John Maynard Keynes: economist and policy maker, 1955)』, 博英社, 1959; K. K. Kurihara 著, 高周元譯, 『케인즈動態經濟學(Introduction to Keynesian Dynamics, 1956)』, 法文社, 1959; 존 로빈슨(Joan Robinson), 趙璣濬譯, 『케인즈經濟理論의 一般化(The Rate of Interest and Other Essays, 1954)』, 一潮閣, 1960; 한센(Alvin H. Hansen), 朴宇熙譯, 『現代經濟學(The American Economy, 1957)』, 東華文化社, 1962.

42) 초창기 미국의 케인즈경제학 형성에 관해서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장상환 옮김, 『경제학의 역사』, 책벌레, 2002; 田中敏弘, 『アメリカの經濟思想』, 名古屋大學出版部, 2002; William J. Barber, *Designs within disorder: Franklin D. Roosevelt, the economists, and the shaping of American economic policy, 1933-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참조.

국민소득과 유효수요 등에 관한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그동안의 경제원론서와 구성·내용에서 확연히 변별되는 케인즈 경제학에 의거한, 즉 국민소득이론에 따른 거시경제학 교과서로서 1955년 고승제의 『경제학』과 이정환의 『경제원론』이 출간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 1960년대까지 다수의 경제원론서는 김두희의 『경제원론』(1956), 성장환의 『경제학입문』(195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부에 신고전학과 경제학을, 후반부에는 국민소득이론을 배합하는 형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점차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계의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시야와 이해가 확대, 진전됨에 따라 그 기술 항목이나 내용 또한 일정하게 변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의 전선 교착과 함께 케인즈경제학은 급속히 수용·확산되기 시작했지만, 케인즈경제학 이론이 한국의 경제 현실에 적합, 타당한 것인가에 관한 의문 또한 그와 동시에 표명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1936년 이래 자본주의경제학은 일변하여 케인즈혁명 또는 케인즈학파라는 표현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케인즈이론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제국에서 성공한 원인과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 독점·금융자본주의단계의 세계공황을 능히 설명하여 그리고 극복의 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유일한 이론경제학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틀림없이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 한국의 학도는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케인즈를 난용하지 말기를 바란다. 선진제국에서 케인즈를 말한다고 하여 우리 후진국에서도 그의 이론이 크게 적용되는 것 같이 보아서는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43)</sup> (밑줄: 인용자)

케인즈의 이론을 우리의 토양에 扶植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냐 하는 점이다. 산업고도화의 위에서 遊休되어 있는 물적 인적 자원을 전제로 하는 과잉생산,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수요의 문호가 닫혀 있는 과잉생산을 타개하기 위하여

43) 崔虎鎮, 「(學究指針: 經濟學의 發達) 존 메이나다 케인즈」, 『商大評論』 2호,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학예부, 1953년 5월 15일.

나온 것이 바로 케인즈의 이론이다. (…) 그러니 이러한 豊中貧의 이론을 우리나라 같이 축소재생산과 비탄력적 인플레이션을 내용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貧中貧의 마당에 유효공급을 최고과제로 해야만 될 마당에 부식하여서 과연 국민경제의 후생을 꺾할 수 있을 것인가 함은 저옥이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sup>44)</sup> (밑줄 : 인용자)

1950년대 한국 경제학계에서 케인즈경제학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산출되었던 케인즈경제학이 미국 경제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후진적인 한국의 경제체제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 시선 또한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케인즈경제학을 적극적으로 소개, 수용했던 이정환과 성장환의 대답은 당시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케인즈경제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주목, 수긍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후진국가에 있어서는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강화하여 자본형성을 완수함으로써 불완전고용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과 후진국에 있어서 불완전고용의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며는 선진국가의 불완전고용을 분석하고 있는 케인즈이론은 그냥 그대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 질수는 없을 것이나 그 이론이 가지고 있는 특색, 일국의 생산량의 規模와 그 變動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방법만은 경제의 현실을 포착하는 분석도구로 이용되어도 좋을 것이다.<sup>45)</sup> (밑줄 : 인용자)

이상 논술한 바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한국경제의 당면과제란 상업자본과 산업자본으로 전화에 있으며, 이에 있어 핵심적 문제인 것은 투자유인을 높임에 있다. 비록 케인즈는 고도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투자유인의 문제를 해명하고는 있으나, 오늘의 후진경제사회인 한국에 있어서도 문제의 소재는 동일한 범주에

44) 洪又, 『經濟學 概念의 究明』, 『大學新聞』 1954년 11월 29일, 3면.

45) 이정환, 『두 가지의 불완전고용』, 『동국월보』 1955년 5월 18일, 3면.

속하는 것이며, 다만 그것이 선진적 형태와 후진적 형태를 갖는 것만이 다를 뿐이다. 케인즈경제학의 방법론만이 오늘의 한국 더 나아가서는 爾餘의 후진경제사회의 경제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sup>46)</sup>  
(밑줄 : 인용자)

이정환의 “일국의 생산량의 규모와 그 변동”, 성장환이 말하는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의 전화에 핵심적인 “투자유인을 높임”에서 볼 수 있듯이 케인즈경제학은 생산의 확충, 즉 후진국의 ‘경제성장’ 문제와 결합하여 활용될 여지가 크다고 이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관한 추상적인 원리에 그치지 않고, 후진지역 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 여건과 경제구조의 구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타개하여 경제자립과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관점과 방법을 제시하는 작업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후술한 후진국경제개발이론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케인즈의 『일반이론』은 ‘경쟁적 시장’이라는 가정 속에서 경제불황에 대한 단기 정태적 설명과 대응에 관한 이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케인즈경제학에 대한 이후의 연구 흐름은 경쟁적 시장뿐 아니라 불완전경쟁, 나아가 과점시장 등을 가정하여 거시경제의 미시경제적 기초를 확장·심화하는 방향과 거시경제의 단기(短期) 정태적(靜態的) 성격을 장기(長期) 동태적(動態的) 이론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전반 케인즈경제학의 수용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초창기에는 케인즈경제학을 ‘자유방임의 파산’과 수정자본주의의 이론으로서, 또는 국가의 정책적 개입을 통해 유효수요의 확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경제적 모순을 타

46) 성장환, 『韓國經濟와 케인즈經濟學』, 『고대신문』 1955년 6월 27일 3면. 한국전쟁 이후 급속한 케인즈경제학의 수용·확산 과정 속에서 케인즈경제학은 한국의 경제현실에 유효한가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성장환은 여러 지면을 통해 동일한 답을 내리고 있다. 성장환, 『經濟理論과 政策에 關한 基本考察: 韓國의 經濟現實에 照應하여』, 『財政』 5권 1호, 大韓財務協會, 1956년 1월; 성장환, 『韓國經濟와 케인즈 經濟學: 케인즈經濟學은 後進國經濟에 무엇을 寄與할 것인가』, 『思想界』 1956년 4월호, 思想界社.

개하는 이론이라는 경제사상적 차원의 원론적인 소개가 적지 않았다. 그와 동시에 당시 미국에서 케인즈경제학을 뿌리내리는 것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한센(Alvin Hansen)의 장기침체이론 또한 주목을 받았다. 한센의 장기침체이론은 당대 미국 경제학자들이 전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 경제, 즉 전시경제로부터 평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경제불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 속에서 도출된 것이었다.<sup>47)</sup> 이와 같은 장기침체이론과 그 전망이 경제학계를 지배하는 가운데 1940~50년대 초까지 미국의 자본수출과 원조 등을 통한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이 미국 등 선진국에게 시장을 제공하거나, 또는 내부적인 경제안정과 완전고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의 근거로서 작동했다.<sup>48)</sup>

195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케인즈 『일반이론』의 단기적(정태적) 성격, 나아가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불황이론적 성격을 장기적인 성장이론으로 확대시켰던 해로드(R. Harrod) - 도마(E. Domar) 모델을 바탕으로 한 케인즈경제학이 적극적으로 수용, 확산되었다.<sup>49)</sup> 앞서 인용했던 경제학자들의 접근방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후진국경제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상의 문제로 삼아야 하는 점은 재화의 소비보다는 재화의 生産方途如何”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생산력보다는 재화 및 용역의 교류관계”의 “안정적 순환”에 치중하는 “화폐중심의 이론방향” 또한 “제2차적인 고찰”의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서 그 적극적 수용의 맥락을 또한 엿볼 수 있다.<sup>50)</sup> 이러한 적극적 수용을 바탕으로 해로드의 소득 성장모형(방정식)  $G(\text{성장률}) \cdot C(\text{자본계수}) = S(\text{저축률})$ 에 근거하여, 일정한 국민소득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47) 전후 미국 경제에 대해 한센, 사무엘슨을 비롯한 미국 케인즈경제학자들은 대다수가 암울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William J. Barber, *Designs within disorder: Franklin D. Roosevelt, the economists, and the shaping of American economic policy, 1933-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pp 158~168; 실비아 나사르, 김정아 옮김, 『사람을 위한 경제학』, 반비, 2013, 제16장 참조.

48) 안트(Heinz W. Arndt) 著, 安鍾吉 譯, 『經濟發展思想史』, 比峰出版社, 1989, 58~61쪽.

49) 해로드(Roy F. Harrod) 著, 이정환 譯, 『動態經濟學序說』, 일조각, 1958; 해로드-도마·갈도-릭스 著, 이정환·이기준 編譯, 『經濟成長의 모델』, 일조각, 1959; 洪又, 『現代經濟理論』, 일조각, 1959 참조.

50) 李昌烈, 『後進國經濟理論提起의 根據』, 『財政』 5권 7호, 1956년 7월호, 21쪽.



자본량(자본계수)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필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이 이후 장기개발계획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가령 부흥부 산업개발위원회가 발족하기 이전 산업은행에서 발간한 『經濟政策의 構想』은 닉시(Ragnar Nurkse)의 후진국 경제개발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해로드(Harrod)의 자본계수와 국민경제제정 방식을 택하여 작성되었던 네이산 보고서(Nathan Report, 한국경제재건계획)<sup>51)</sup>의 계획 모형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이었다.<sup>52)</sup>

### 3. ‘한국경제’의 갈 길

#### – ‘필연’으로서 자본주의와 ‘전(前)’자본주의 단계의 현실

본 장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 경제학계를 주도했던 몇몇 경제학자들이 당대 조선 경제구조와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어떻게 타개, 극복하려고 했는가에 관한 인식의 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맑스주의 경제학에 입각하여 1948년 『經濟學入門』을 발간했던 고승제는 1946년 초반 당시 ‘조선경제재건’의 정책적 방도를 제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조선경제재건의 과제는 “신조선의 국가건설”에 따른 “경제건설”과 “전세계경제의 전후재편성”의 두 가지 차원이 겹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곤란한 것이라 하면서도 “조선경제재건”의 “지향

51) 네이산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당시 최호진은 “우리의 생활수준을 과도히 낮게 평가한 기준에 의거한 최저의 자립수준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계획하에서는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확대재생산을 확보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하여, 보고서에 담긴 계획의 목표 등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崔虎鎮, 『韓國經濟의 復興計劃과 財源』, 『復興月報』 1권 1호, 復興部, 1956년 6월, 15쪽. 한편 당시 산업은행 조사부에서 활동하던 박동섭, 그리고 안림 등은 네이산보고서의 기준연도 책정이나 목표수준 등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보고서에 담긴 ‘계획모형’에 대해 높게 평가하였다. 안림은 보고서에 대해 “한국경제전반에 걸쳐서 廣範圍密한 관찰”을 토대로 “최초의 과학적인 계획 책정”이라고 평가하고, “거시적인 국민소득접근법과 미시적인 산업별접근법을 병용”하여 “우리들의 경제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도 방법론상의 좋은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安霖, 『韓國經濟와 네이산報告의 位置』, 『産業經濟』 29호, 大韓商工會議所, 1955년 5월, 10쪽; 朴東燮, 『韓國再建計劃策定の 問題點』, 『産業經濟』 29호, 大韓商工會議所, 1955년 5월호 참조.

52) 韓國産業銀行 調査部, 『經濟政策의 構想』, 1956, 39~59쪽, 66~77쪽.

할 방면”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솔직히 말하여 朝鮮은 資本主義의 前途를 가진 곳이 아니다. 그것은 對外的으로 보아 全資本主義世界가 발전 一般的 破綻 속에 빠져 있는 이때에 우리들만이 資本主義의 꽃을 觀賞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對內的으로 보아서 아예서 지극한 社會經濟制度의 雜多性을 克服하고 現段階의 經濟體制의 不安定狀態를 是正하려면은 도저히 資本主義 같은 것은 容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두 가지 具體的 條件 밑에서 今後 方向은 스스로 決定될 것이니 朝鮮經濟의 復興發展을 實現시키는 方途는 다만 計劃經濟體制를 수립시키는 것뿐이라는 事實에 모든 思考를 集中시켜야 되겠다. (밑줄-인용자)<sup>53)</sup>

위의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대내외적으로 조선은 자본주의 체제건설의 길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이어 계획경제에 입각한 조선경제 재건의 구체적인 방도로서 ‘농공균형발전’을 제시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계기이자 기준을 “노동자원의 분배”에서 찾았다. “전체적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노동자원을 생산부면과 비생산부면, 그리고 생산부면 중 농업, 공업, 건축사업, 운수체신, 상업-창고업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자본조건과 생산·분배·소비·확장 등의 廣義의 生産條件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조건에 적합한 적정 인구를 배정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7쪽).

특히 그는 “독자적인 공업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적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을 경우 “조선공업건설의 요건”으로서 “(가) 충분한 국내시장을 확립할 수 있게끔 공업의 확장과 적극화를 계획할 것, (나) 비교적 소자본을 요구하는 공업을 채택할 것, (다) 조선의 농산물과 광업자원을 공업개발할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공업화가 외래적인 것이 되는 경향을 방지”해서는 안되며 “민족적 토착적 농공발전에 기초를 둔 자주적인 공업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장래할 중공업화를 지향하면

53) 高承濟, 「朝鮮經濟再建論」, 『春秋』續刊 제1호, 朝鮮春秋社, 1946년 2월, 5~6쪽.

서”도 우선적으로 “많은 인구를 흡수”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의 공업”을 다수 분산 육성하는 길을 채택한다면, 자본주의국가의 경기변동 과급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농업부분과 공업부분 사이의 균형조건 하에서 전체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54)</sup>

이후 미·소대립과 좌우갈등 속에서 남북 경제의 분단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1947년 하반기 그는 “朝鮮經濟는急速한崩解過程을突進”하고 있다고 하면서 “生産體系의分裂 내지崩解로 인한生産力の減退, 再生産的循環의停滯”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조선경제재건의 방도”는 “時代的宿命인生産力發展”에 집중함으로써 “從來의植民地經濟的生産體系를國民經濟的生産체계”로 재편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55)</sup> 1946년 주장했던 ‘계획경제체제’에 입각한 ‘조선경제재건’의 구상 대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고, 현실 조선 경제의 위기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안이었다.

이어 남북 분단이 공식화되고 미국의 경제원조가 가시화되었던 1949년 중반 그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는 “식민지적인 경제체제에서 자주적인 국민경제체제에로 재전환”, “빈약한 생산력을 유럽이나 아메리카의 생산력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自主經濟”의 목표로 삼아왔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수십 년 후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장기의 목표”일 뿐이기에 그 보다는 지금 악화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응급치료적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나갈 것을 주장했다.<sup>56)</sup> 그와 같은 단기 목표로서 생산능력의 증진, 생산부흥과 인플레이션 수속(收束)의 병행 추진, 수입의 삭감과 수출 진흥 등을 들고 특히 생산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영

54) 이와 같은 고승제의 ‘조선경제재건’ 구상은 “계획경제체제”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질적인 것이지만, 1950년대 후반 한국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졌던 넉시(Ragnar Nurkse)의 ‘후진국 경제개발론’에 흡사한 측면이 있다. 넉시는 후진국의 과잉인구와 결합된 농촌의 위장실업을 “자본형성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자신의 후진국 경제개발론을 구성했다. 이에 대해서는 홍정완, 「195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후진국 개발론 수용」,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2018, 434~441쪽.

55) 高承濟, 「朝鮮經濟再建의新方向-生産力發展을中心으로」, 『朝鮮春秋』 1권 1호, 朝鮮通信社出版部, 1947년 12월, 36~37쪽.

56) 高承濟, 「自主經濟의方途」, 『民聲』 제5권 제8호, 高麗文化社, 1949년 8월, 31쪽.

협동화와 이를 경제원조, 외자도입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9년 당시 경제이론의 측면에서 바르가(Evgenii S. Varga)의 맑스주의 경제학을 높게 평가하고 “현대의 경제학”의 역사적 사명을 “세계자본주의의 경제학”으로서의 “현단계의 세계자본주의의 총기구를 분석”하는 것에서 찾았던 고승제는 당시 악화된 조선의 경제적 현실에 대해 효과적인 경제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통해 자립경제의 단초를 열어갈 방도를 제시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 그는 “한국경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전체적으로 분석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문제”로서 “구라과 여러 나라 경제의 선진성에 대한 동양 여러 나라경제의 후진성”의 규명을 제기하였다. 다시 말해 “비단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동양 각국의 경제를 분석 이해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부닥치게 되는 문제”는 “구라과 여러 나라의 경제가 16세기를 출발점으로 고루히 근대화하였는데 반하여 동양 여러 나라의 경제는 어찌하여 것처럼 근대화하지 못하였는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막스 베버의 『社會經濟史』에 담긴 “동양 각국의 경제가 왜 근대화를 이룩하지 못 했는가”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구라과 여러 나라의 경제가 이처럼 맥맥하게 순조롭게 근대화를 이루게 된 원동력”으로서 “독립자영농민” “요-멘리-”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농업근대화”를 들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을 비롯하여 구라과 여러 나라의 공업은 “이들 중산적 생산자층이 한결음씩 경제적으로 성장해감에 따라서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하여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의 경제사 연구에 의거하여 서술하고 있다.<sup>57)</sup>

정전협정 체결 이후 그는 “歐美諸國의 生産力과 韓國의 生産力”의 비교하면서 양자 사이에 “쌓이고 쌓인 差異”, 혹은 “乘離”를 지적하고, 이를 “世界史의 段階가 다르다”고 표현하였다. “아직 近代化를 完了하지” 못한 한국경

57) 高承濟, 『韓國經濟의 歷史的 特質』, 『商大評論』 創刊號, 서울大學校 商科學 學藝部, 1952, 8~10쪽. 조기준(趙璣濬) 또한 아시아의 심체성, 정체성과 대비되는 서구 시민사회 형성을 위와 같은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의 학설에 의거하여 설명하였다. 趙璣濬, 『아시아 社會의 沈滯性: 社會·經濟面에서의 考察』, 『現代』 1권 2호, 女苑社, 1957년 12월, 51~54쪽.

제를 재건하려고 할 경우, “가장 앞서야 할 基本原理가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歐美諸國의 歷史過程에 있어서 經濟體制의 近代化라는 動向이 그곳에서 開始되었던 것이 “歷史上 어떠한 社會的 事態의 生길 적에 그곳을 起點으로 하여 近代化가 現實로 進展하였는가”를 “부럽게 돌아다보면서” 그 속에서 “韓國經濟再建의 實體的 基礎를 찾아내야 한다”고 하였다.<sup>58)</sup>

한국전쟁 이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전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체제 변동 속에서 자본주의는 “지양될 운명”이라고 평가했던 최문환 또한 고승제와 유사한 구도와 관점의 전환을 나타내었다. 최문환은 1949년 그의 저작 『近世社會思想史』를 통해 “資本主義와 自由主義는 實踐的 社會指導原理를 잃은 遺物로 轉化”했다고 규정하면서 “資本主義는 社會化, 計劃化의 社會에로 一步 前進”하게 되었으며, “蘇聯같은 社會主義的 計劃經濟는 勿論이 아니라 大部分의 資本主義國家도 國民經濟總體로서 計劃化의 動向은 必至的”이라는 것이라고 보았다.<sup>59)</sup> 그는 막스 베버(Max Weber)의 『프로테스탄트와 자본주의 정신』과 오쓰카 히사오(大塚久雄)의 경제사 연구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의 주장이 당대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변동 상황에 부합할 여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겪은 후 최문환의 사상적, 이념적 태도는 크게 변화하였다.<sup>60)</sup> 휴전 직후 발표한 「막스 베버의 현대적 의의」에서 그는 “최근 해외의 학계에서 ‘외버-’의 연구열이 높아지며” 그에 대한 “새로운 재평가가唱導”되고 있음을 지적하고,<sup>61)</sup> “6.25동란을 맞아 빈곤의 심연에 빠져 이제는 동물적 생존을 지속”하고 있는 경제적 참상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58) 高承濟, 「韓國經濟再建의 實體的 基礎」, 『法律과 經濟』 1권 1호, 法律과經濟學會, 1954, 47쪽.

59) 崔文煥, 『近世社會思想史』, 大成出版社, 1949, 261~263쪽.

60) 이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홍정완, 「195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후진국 개발론 수용」,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2018, 414~429쪽 참조.

61) 崔文煥, 「‘막스·외버-’의 現代的 意義」, 『文理大學報』 2권 1호, 서울大學校 文理科大學, 1954, 4쪽. 출전을 표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논고는 靑山秀夫, 『マックス・ウェーバーの社會理論』(岩波書店, 1950)의 내용, 특히 「第四論文 ウェーバーの中國社會觀序說」에 상당 부분 기대어 있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는 전시경제에서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어서 원조물자를 받아 재건하면 경제적 번영은 필연적으로 도래하리라는 낙관주의자도 있고, 또는 이는 자본주의경제의 고유한 체제모순에서 도래된 사회악이라는 비관주의자도 있을 것이다. (…)원조경제의 도입 문제도, 자본주의 제도적 모순 문제도 그 기본에 있어서는 이 산업자본을 통한 생산, 재생산 과정의 국민경제체제의 확립 위에 비로소 의의를 갖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제도의 내재적 모순은 원래 생산의 과잉에서 초래되는 것이다. <豐富안의 貧困>이 문제로 된다. 그러나 현실 우리의 경제문제는 생산의 과잉이 아니라 생산의 과소 및 생산의 과소재생산 과정에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제문제는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 이전의 것이다.<sup>62)</sup>(밑줄 : 인용자)

그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金錢衝動에 몸부림치는 修羅場이 苛烈”하지만, 그것은 “빈곤의 누적, 축적과정”에 다름 아니라고 하면서 그 극복 방향을 “생산 재생산 과정의 확대”에서 찾았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전쟁 발발 이전 그가 주장했던 ‘자본주의의 계획화, 사회화’는 사라지고, 한국의 경제체제와 현실은 “근대적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 이전”의 것, 즉 ‘前자본주의’ 단계의 것으로 낙착되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한국의 경제적 현상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勿論 長期的 인플레이션은 一般物價騰貴率에 對比하여 實質賃金이 低下되어 利潤이 産業資本의 蓄積으로 되는 境遇가 있다. 그러나 我國에 있어서는 利潤의 獲得이 産業資本으로 轉換되지 않고, 流通部門에 偏重되어 商業資本化하여 物價騰貴만 促進시키고 있다. 이것이 單純한 商業, 高利貸, 弗換을 하든지 그 形態如何를 不拘하고 商人資本主義 및 賤民資本主義의 形態를 取하는 것과 또는 一部特權 政治的 權力을 利用結託하여 營利를 얻고자 하는 政治的 資本主義의 形態를 取하는 二種類의 非近代的, 前期的 資本主義가 支配的으로 行使되어 있다. 換言하면 西歐에서 發生한 合理主義的 經營과 自由勞動을 가진 부르조아의 産業資本主義와 (같이)

62) 崔文煥, 위의 글, 5~6쪽.

正常的으로 發展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産業資本이 歪曲化하여 商業, 高利貸 資本, 金融資本, 政治的 權力과 異樣히 交織, 混淆, 重積되어 있다. 이러한 奇形化 된 資本性格이 國民經濟의 展望的 發展과의 聯關 없이 謀利를 爲하여 熾烈한 爭鬪의 마당을 演出하고 있다.<sup>63)</sup>(밑줄 : 인용자)

최문환은 전근대적(前近代的) 자본주의 형태로서 상인자본주의 혹은 천민 자본주의, 정치적 자본주의를 들고, 이를 근대적인 산업자본주의와 ‘대립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당시 한국경제의 상황을 전자(前者)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비판하였다. 이는 막스 베버의 자본주의 형태에 대한 3가지 분류, 즉 상인자본주의 내지 천민자본주의, 정치적 자본주의, 근대적 산업자본주의를 기본 범주로 삼는 가운데, 전근대적 자본주의(상인자본주의, 정치적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一時的으로 曠野의 鬼火와 같이 活躍”하지만, “持續적으로 經濟社會의 全般을 發展시키지 못하고”, “經濟社會의 外皮에만 影響을 주다가 消滅”하는 것으로 규정한 반면, “近代的 資本主義는 生産力을 擴大시키면서 모든 産業部門을 連鎖的 聯關的으로 變革시키고 經濟社會를 全構造 近代化시키면서 社會를 前進”시킨다고 대비하여 파악하였다.<sup>64)</sup>

즉, 한국전쟁을 거치며 최문환에게 베버-오스카의 학설은 ‘과거의 것’에서 ‘미래의 것’이자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변환했던 것이며, 이것은 ‘세계적 동향과 결부하여 ‘자본주의의 지양’을 전망하던 구도에서 ‘前近代資本主義’-‘近代資本主義’, ‘先進社會’-‘後進社會’의 구도로 급격히 전화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의 경제적 현실과 향후 진로를 타진하는 것으로 크게 변화했던 것이다.

연희전문 상과를 거쳐 1941년 일본 릿교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해방 후 국학대학과 동국대학 교수 등을 지냈으며, 한국전쟁 이전 ‘중도우파’, ‘중간파’의 이념적 입장에서 『새한민보』 등을 통해 평론활동을 전개했던 김상겸(金相謙)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경제가 처한 현실과 그 극복의 방향을 가늠하는 논고를 발표하였다.<sup>65)</sup> 그는 한국 경제의 후진성을 논하면서 자본주의진

63) 崔文煥, 『韓國經濟의 特徵』, 『大學新聞』 1954년 11월 29일, 3면.

64) 崔文煥, 『後進國經濟開發의 一考察』, 『財政』 5권 12호, 1956년 12월, 11~12쪽.

영과 사회주의진영이 대결하는 세계질서를 평가하는 가운데 “世界史가 到達한 現段階”은 “두말할 것 없이” “資本主義라는 것만은 否定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현실 사회주의 진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그러나 一聯의 主義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社會主義가 資本主義 다음에 올 發展段階로의 새로운 萌芽라고 判斷하기에는 너무나 釋然치 못한 바가 없지 않다. 그것은 社會主義가 現實에 있어서 自己를 貫徹시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때문이다. 卽 社會主義는 意識的 革命主義者의 前衛, 共產黨에 의하여 引導되고 強制되며 獨裁的 計劃經濟에 依하여 維持되고 있다는 것을 否定할 수 없는 것이다. 世界史의 現段階에서 볼 때 社會主義는 必然的인 發展段階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意識에 의하여 強制되어 도달된 客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客觀을 誘導하는 意識 乃至 主觀이 아무리 科學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의하여 強制된 客觀的 場面은 아무래도 客觀的 必然에 의하여 到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冷嚴한 論理인 것이다. 資本主義가 窮極에 있어서는 自體의 內部論理로 해서 死滅할 것이라고 할지라도 資本主義의 現段階가 벌써 그러한 段階에 到達하였다고 斷定할 수는 없으며, 그러나만큼 社會主義는 그 自體와 觀念의 強制 없이는 現段階에 있어서 自己를 貫徹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sup>65)</sup>(밑줄-인용자)

그는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 “意識에 의해 強制”된 것일 뿐이기에 “客觀的 必然”일 수 없는 것이라 평가하였다. 그렇기에 “오늘날 資本制經濟組織을 威脅”하고 있는 것은 “客觀的인 힘이라기보다는 諸種의 反現實的인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른 글에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속된 경제적 불황과 러시아혁명의 성공에 직면하여 “豫言이 決定的으로 的中

65) 金相謙, 『(八一五特輯) 八一五의 歷史性과 展望』, 『새한민보』 3권 17호, 새한민보사, 1949년 8월 25일; 金相謙, 『(書評) 『協同組合講話』 讀書』, 『協同』 24,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9년 9월; 金相謙, 『뉴달의 理論의 根據-美經濟政策管見(上)』, 『새한민보』 3권 14호, 새한민보사, 1949년 6월 참조.

66) 金相謙, 『經濟의 後進性과 自主性』, 『經濟學叢』 2호, 延禧大學校 商經大學 商經研友會, 1953년 9월 1일, 11쪽.



하는 양으로 確信을 가지고 소위 알게마이네 위기(一般的 危機)을 斷言”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쓰聯의 御用學者 바르가에 의해 危機에 대한 새로운 發言이 되푸리”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現代經濟가 如前히 健在하다는 것은 嚴然한 客觀的 事實”이며, “모든 豫言이 煽動的 效果 이외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67)</sup>

그와 같은 “強制的 이데올로기”가 제거된다면 “後進的 經濟構造의 다음에 來頭할 發展段階는 資本主義”라는 것이 “客觀的 必然에 順應하는 科學的 態度”라고 주장하였다.<sup>68)</sup> 이어서 19세기 이래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경과를 거론하면서 선진 영국 경제와 미국, 독일, 일본 등 후진국의 관계가 변동했던 상황 등을 지적하고, 그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후진성의 특성과 극복 문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以上에서 現段階의 後進經濟가 前日의 그것에 比하여 階梯와 立場이 다르다는 點으로써 時間의 長期差와 先進의 性格差 두 가지를 指摘하였다. 勿論 其外에도 指摘되어야 할 點은 許多히 있겠지만 이것을 다음에 미루고 結論을 速히 말한다면, 今日의 後進이 後進性을 克服하는데 오늘날 이미 先進化한 前日의 後進이 後進性을 清算한 바와 같은 産業資本의 形成蓄積이라는 自體能力의 培養에 依하여 先後進 摩擦을 除去함으로써 時間性的 現實差를 轉倒시킨다는 式의 捲土重來는 거의 疑問視되는 것이라 하겠다. 今日의 後進이 後進으로써 받는 制約은 克服해야 할 時間差에 있어서 원체 長期이요, 對決해야 할 資本差에 있어서 比較를 絶한 大幅인 까닭에 一擊으로 時間과 空間에 있어서 先進性的 爭取라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資本은 生産組織의 維持者라는 意味에서 空間的이요, 이 空間的인 資本의 大幅差를 줄이는 데는 長久한 時間을 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그러면 現段階에 處한 後進國의 後進性이라는 것은 前日의 後進성과 다르다는 것은 明白하다. 그리하여 이것을 가리켜 日 落後的 後進性이라 하자는 것이

67) 金相謙, 『現代危機와 經濟』, 『연회춘추』 1954년 6월 26일, 2면.

68) 金相謙, 『經濟의 後進성과 自主性』, 앞의 책, 12쪽.

다.<sup>69)</sup>(밑줄-인용자)

인용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김상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후진국의 후진성을 “선진성의 쟁취”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측면에서 “낙후적 후진성”이라고 규정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로써 “時間의 長期差와 先進의 性格差”를 들었다. “선진의 성격차”라 함은 과거 19세기 영국과 달리 “금일의 선진은 독점단계의 고도자본주의”라는 점에서 과거처럼 원시적 방법으로 약탈을 감행하지 않지만, 후진국에 가하는 압박과 영향의 ‘강도’로 본다면 오히려 과거의 선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간의 장기차”를 들고 있다. 그는 19세기 선진-후진의 시간차가 30~50년 정도라 한다면 “한국과 같은 현단계 후진”과 선진의 시간차는 150~200년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오늘날의 한국과 같은” 후진의 진정한 “위기”는 “人間一代의 壽命을 넘는 長期差”로 인해 자본주의경제로서의 선진성을 쟁취한다는 것이 갖는 곤란성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렇기에 그는 ‘낙후적 후진성’의 극복은 정치·법률·정책 전반의 통일적인 강력한 조치와 그것에 전개에만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한국전쟁이 한국 사회과학에 미친 영향을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해방 이후 맑스주의 경제학의 영향력이 컸던 경제학계의 학문 경향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 그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학문경향으로 급속히 재편되어 갔다. 전시(戰時)부터 경제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케인즈경제학으로 급격히 전화하였고, 그러한 전화의 지렛대는 1940년대 미국 경제학계에서 산출한 케인즈경제학 해설서, 즉 케인즈경제학을 투자·저축·국민소

69) 金相謙, 위의 글, 16쪽.

득결정에 관한 경제이론으로서 해석한 텍스트들이었다.

당시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배경으로 산출되었던 케인즈경제학이 후진적인 한국 경제체제에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 평가 또한 제기되었지만, 케인즈경제학이 후진국의 경제성장 문제에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케인즈 『일반이론』이 갖는 단기적(정태적) 성격, 장기침체에 대응하는 불황이론적 성격을 장기적인 성장 이론으로 확대시켰던 해로드(R. Harrod) - 도마(E. Domar) 모델을 바탕으로 한 케인즈경제학이 수용, 확산되었다. 해로드의 소득 성장모형에 근거하여, 일정한 국민소득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자본량(자본계수)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투자필요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이후 장기개발계획 작성의 이론적 프레임으로 활용되었다.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후 전세계적인 정치경제적 체제 변동 속에서 자본주의는 “지양될 운명”이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한국의 경제체제 건설을 전망했던 한국 경제학자들의 사상적 경향은 한국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지양되어야 할 것이었던 자본주의 체제는 ‘객관적 필연’으로 긍정되었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전(前)자본주의’ 단계로 낙착되었다. 한국전쟁을 거치며 ‘필연’으로서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자본주의의 역사적 거리는 더욱 현격하게 감각되었으며, 그러한 거리는 ‘전(前)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체제의 구도로 이해되는 가운데 유럽 자본주의의 탄생 과정은 ‘부럽게 돌아봐야 할’ 근대화의 경전으로 초점화되기 시작하였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 균 · 이헌창 편, 『한국 경제학의 발달과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출판부, 2005.
- 김봉국, 『생전과 투쟁 - 전후 한국의 세계해석과 의미경쟁(1945~1953)』, 선인, 2018.
- 김학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백년사(1)』,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5.
- 대한민국 학술원 편, 『한국의 학술연구: 경제학(인문·사회과학篇 제6집)』, 2005.
- 박태균, 『원형과 변용』,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 방기중, 『한국근현대사상사연구』, 역사비평사, 1992.
-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철수와영희, 2012.
- 韓國經濟學會, 『韓國經濟學會略史』, 1991.
- 한국농업경제학회 편저, 『韓國農業經濟學의 泰斗, 金俊輔 先生의 삶과 學問世界』, 농민신문사, 2009.
- 허 은, 『미국의 헤게모니와 한국 민족주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8.

### 2. 논문

- 姜命圭, 『高承濟博士의 學問世界』, 峯山高承濟博士 古稀紀念論文集 刊行委員會, 『峯山高承濟博士 古稀紀念論文集』, 1988.
- 김동춘, 『한국전쟁과 지배이데올로기의 변화』, 『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 1998.
- 吳鎭錫, 『해방 전후 崔虎鎭의 학문세계와 학술활동』, 『한국경제학보』 21권 2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4.
- 정준영, 『경성제국대학과 식민지헤게모니』,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 \_\_\_\_\_, 『해방직후 대학사회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한국근현대사연구』 6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 정진아, 『해방20년(1945~1965) 한국 경제학계와 연세대학교 상경대학의 경제학 교육』, 『한국경제학보』 22권 3호,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2015.
- 趙璣濬, 『經濟學』, 『韓國現代文化史大系(2): 學術·思想·宗教史(上)』,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76.
- 홍성찬, 『최호진의 경제사 연구와 저술의 사회사: 1940~60년대』, 『동방학지』 145,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1.
- 홍정완, 『1950년대 한국 경제학계의 후진국 개발론 수용』, 『한국사연구』 182, 한국사연구회, 2018.

## Korean War and the Changes in the Intellectual Frame of Korean Economists

Hong, Jeong Wan\*

The Korean economics circle in which Marxist economics was influential in the postwar period underwent drastic change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Korean economists quickly changed their focus to Keynesian economics. What accelerated their transformation to Keynesian thinking were economics texts publish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40s that interpreted Keynesian economics through the economic theories of investment-saving-national income. To be sure, there was skepticism among Korean economists who questioned the validity of Keynesian economics, which, they believed, was based on the highly developed capitalist system. But they also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Keynesian economics would be applied extensively to the issue of economic developmen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fter the Great Depression and World War II, while capitalism was evaluated as “fate to be sublated” amid changes in the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 ideological tendency of Korean economists to build an economic system in Korea changed great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e capitalist system, which should have been sublated, was confirmed as “objective necessity,” and the backwardness of the Korean economy was settled at the “pre-capitalist” stage. After the Korean War, in the world order of capitalism, the historical distance between advanced capitalism and backward capitalism

---

\* Institute for the Study of Korean Modernity, Yonsei University / Research Professor

was felt more conspicuously, and while the distance was understood as the composition of “pre-capitalism” and capitalism, the birth process of European capitalism began to be focused as a scripture for modernization that should be envied.

**Key words** : Korean War, marxism, capitalism, Keynesian economics, development, backwardness, modernization